

청소로 가벼운 신체 되기

백수의 삶을 선택하다.

저는 현재 백수입니다. 작년11월부터 계약기간이 끝나 놀게 되었습니다. 작년 일 년 일성에서 공부하며 백수의 삶을 준비해 왔습니다. 월급이 주는 안락함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월급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나의 생활을 나의 의지로 나의 활동들로 채워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저런 질문들로 공부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백수가 된 것입니다. 댄스 수업도 듣고 공공도서관투어도 다니고 발리 여행도 온 좋게, 코로나 전에 한 달이나 다녀왔습니다.^^ 백수가 되어 하루를 온전히 제하고 싶은 일들로 채워 나갔습니다. 남들이 시킨 나의 취향과는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올해 다시 일성을 등록하여 과정에 있는 텍스트를 읽고 보조 서적을 찾아서 공부하는 생활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다 7월에 새로운 프로젝트에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하던 다짐들, 실제로 경험한 행복한 백수생활은 또 달콤한 월급이라는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일주일을 생각하고 갈등한 끝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노후 자금이 날아갔다는 아쉬움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 가슴이 뻥 뚫리듯 시원했습니다.

위대한 영혼들에게는 아직도 자유로운 삶이 열려 있다. 진정, 적게 소유하고 있는 자는 소유되는 일도 그만큼 적을 것이다. 복 있나니, 조출한 가난은! 83쪽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 고용주에게 저의 온종일을 갖다 바치는 일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삶을 원합니다. 백수의 삶을, 조출한 가난을 선택함으로써 타인에게 소유되는 일이 적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고정관념 깨부수기

올 해 상반기 6개월 동안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정말 편안하게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받으며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7월을 마지막으로 끝단지에 동이 났습니다. ‘올 해는 편히 쉬자’ 생각은 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백수생활에 적합한 경제활동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주는 월급을 거부했으니 지출을 줄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생활 반경을 줄이고 꼭 필요한 활동에 꼭 필요한 지출만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최소비용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감이당 대중지성 회비, 각종 세미나 비용, 책값, 교통비, 용돈, 술값 등 한 달 50만원쯤 필요하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하루에 3~4시간을 할 수 있는 일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우연히 청소어플을 발견했습니다. 이 어플은 가사도우미처럼 전문적인 청소가 아닌 누가 대신 해주는 청소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이었습니다. 일단 신청하고 청소하러 가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배정받은 집은 엄청나게 지저분했습니다. 그 쓰레기 더미에 일단 놀라고 날고 용한 사람과 대면하는 것도 낯설고 이래저래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를 해나감에 따라 점점 깨끗해지는 집안을 보며 알 수 없는 묘한 쾌감이 들었습니다. ‘엇 이게 뭐지? 이것이 청소의 힘인가?’ 이런 생각에 청소하는 일이 공부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

겠구나. 더 나아가 수행의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라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대한 저의 불편함, 또 몸 쓰는 노동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귀한 직업-화이트칼라, 천한 직업-블루칼라라는 고정된 이분법이 있었나 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청소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나? 나도 뭐 20년간 사무직으로 근무했던 사람이야’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약자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의 모순부터 풀어야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니체는 ‘생은 항상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극복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니체가 말한 ‘따뜻한 봄바람, 수소의 성난 뿔’로 내 안에 고정되어 있던 직업, 노동에 대한 관념을 깨부수기로 했습니다. 고정되어 단단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파괴해야지 자유로운 신체를 가진 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또 젊은 양치기의 목구멍으로 기어가는 뱀의 머리를 양치기 스스로 물어뜯으라고 했습니다. 나의 목구멍에 있는 모순, 편견, 고정관념, 약자의 마음은 저 스스로 물어뜯어 뱉어내야 할 것이지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수소의 뿔을 장착하고, 단단한 이도 장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단단해 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하는 자는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신체, 빛나는 신체를 창조한 저는 청소하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놀이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벼운 신체로 청소하기

8월 중순 쯤 공부하던 스터디카페에서 야간 매니저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3시간 쯤 고민하다 연락을 하여 하루 한 시간 스터디카페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을 구했습니다. 하루 한 시간이지만 매일하는 거라 용돈도 되고 무엇보다 스터디카페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특전이 있어서 저에게는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책상 위, 바닥 정리 그리고 휴게실 정리, 비품 채워 넣기, 마지막으로 화장실청소까지가 저의 업무입니다. 처음에는 남자화장실에서 어린 남학생들과 부딪힐 때 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깨부숴야 할 고정된 어떤 것이라 생각하고 일주일 이상을 반복하다 보니 이젠 당당하게 자유롭게 청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것 모두가 가볍게 되고, 신체 모두가 춤추는 자가 되며, 정신 모두가 새가 되는 것, 그것이 내게 알파이자 오메가라면. 진정, 그것이야말로 내게는 알파이자 오메가였다!(383쪽)

깨부쉘진 고정 관념의 덩어리들을 뒤로하고 가벼운 신체로 춤추듯 청소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매일 매일을 창조해 나가는 공부를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저의 정신도 새가 되어 훨훨 자유로이 날아갈 날이 오겠죠. ^^